



담양군-(재)광주디자인진흥원 지역디자인 분야 발전 위한 교류협약 체결

담양군은 지난 16일 최형식 군수와 위성호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디자인 및 산업디자인 등 디자인 분야의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은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으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추진 등 디자인 연구개발과 디자인산업 진흥, 디자인 국제 교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디자인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자인 분야 관련사업 공동 참여, 디자인 진흥정책 및 지역 특화형 디자인 개발 공동 협력,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협력 및 지원, 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디자인 관련 행사 홍보 협조 등 다양한 디자인 업무를 공유할 계획이다.

최형식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디자인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자인 관련 행사 운영을 위한 공간 제공 등 양 기관의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 지역 농가 2020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장성군이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의 쌀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부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등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며, 지역 내 8232 농가(7488ha)를 지원한다. 총액으로 환산하면 155억 5100만원 규모로, 지난해 직불금(74억 3200만원)보다 2.1배 확대됐다.

직불금 지급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구례=박순철 기자

나주시-공무원노조, 노사 갈등 고리 끊었다

단체교섭 요구안 최종협상 따른 단체협약 체결...상생 협력 약속

'상호신뢰·협력과 조화 이루는 노사 관계 구축' 공동입장문 발표

나주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가 공직사회 발전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나주시는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지부장 임진광, 이하 공무원노조)와 지난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 최종 협상에 따른 상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조합활동보장, 노동조건 및 인사제도 개선, 성 평등,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조합원 후생복지 증진 등 총 8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나주시는 지난 2018년 7월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 접수 이후 공식 상견례를 비롯한 수차례 실무 교섭을 통해 안건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왔으며 이날 협약을 통해 비로소 노·사 상생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난 8월 수해복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맑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조합원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시민 행복과 나주 발전의 공동된 사명 아래 상호 신뢰를 쌓고 함께 협

력해 나가는 노사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진광 지부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2018년 나주시지부의 합법노조 출범에 따라 추진해왔던 단체교섭의 값진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관계 증진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신장과 근무조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와 공무원노조는 이날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그간 상반된 입장차로 인해 묵혀왔던 갈등의 고리를 끊어냈다.



시와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지역사회에 격정과 실망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12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상호 신뢰를 바탕

으로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해결에 머리를 맞대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례=최재본부

곡성군, 다음달 4일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 안전교육

11개 읍면 72개 마을 대상 감염병 예방 등



곡성군이 오는 12월 4일까지 11개 읍면 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남도안전학당'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라남도도는 22개 시군별 '남도안전학당'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도 고령자들의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사 4명을 위촉하고 교육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수 집합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강사가 11개 읍면 72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위반 과태료, 교통안전, 화재, 재난재해 안전수칙 등을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교육하는 것이다. 모든 교육은 참석자 발열 체크 및 손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하천과 산지 등으로 수해, 산불 등 재난재해에 취약하다. 주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전통시장, 관광지 등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또한 동절기와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 교육 및 홍보를 펼쳐나가는 등 안전하고 행복한 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곡성=양혜영 기자

곡성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농업용 톱밥 공급

곡성군이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한 목재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사업을 추진해 효용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20여 명의 공공산림가꾸기 사

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단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사랑의 빨감을 제공하고, 부산물인 톱밥은 축산 및 과수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한다.

곡성=양혜영 기자

이미 11월에 각 읍면의 취약계층 70여 가정에 100여 톤의 사랑의 빨감을 전달했다. 또한 톱밥을 신청한 축산 및 과수농가 120여 가구에 1만 2천 포를 산림바이오메스 산림사업장에서 공급하게 된다.

"비대면 청렴골든벨로 청렴 마인드 키워요"

구례군,PC·모바일 활용 청탁금지법 중심 다양하게 출제

구례군은 17일 인터넷으로 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한 '도전!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 골든벨은 퀴즈대회 형식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는 행사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 개최가 어려워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었다.

문제는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공공재정환수법, 괴롭힘 금지법, 성희롱 예방 및 기타 윤리의식 등에 대하여 출제되었고, 문제유형도 OX·객관식·주관식 등 난이도별로 다양하게 출제됐다.

부서별 7명씩 참석한 이번 대회는 우수부서와 직원에게 소정의 상금도 주어졌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 고인돌시장 장날 마스크 착용 캠페인

화순군이 화순읍 장날인 18일 고인돌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군청 총무과장을 비롯한 본청 직원 30여 명과 화순읍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사항 등도 안내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용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잘 착용해주셔서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